인상률 고민도 없이… 지방의원 의정비 최대폭 인상?

지난해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계기 지방의회 앞다퉈 올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 고물가에도 최대폭 인상 검토…28일 최종 결정

전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의정활동비가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의회는 행안부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적정 인상률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까지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21일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12대 전남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한액을 광역의회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시·군 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게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행정에 대한 원활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대두되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오른 반면, 의정활동비는 2003년(월 150만원) 이후 그대로였다.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올해부터 앞다퉈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액까지 파격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행보에 나선 실정이다.

이미 구례·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순천 등 시·군 의회가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한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순천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보수인상률(1.7%)을 뛰어넘는 월정수당 8%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는 의정활동비도 상한액까지 인상한 셈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소극적 활동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영식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합당한 기준액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적정 의정활동비 인상률에 대한 고민보다, 한 번에 상한액까지 인상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1차 회의에서 위원회 스스로 인상률을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안'으로 정해놓고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58%)와 지난해까지의 공무원봉급인상률(53%)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점도 50만원 인상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설문조사도 고작 12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생색내기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안건도 ▲20년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 ▲의정비 심의위 인상안(월 150만원→월 200만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122명 중 인상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65%), 50만원 인상 범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75명(61%)이었다. 특히 적절 인상 범위 질의 대상을 30만원, 40만원, 50만원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50만원' 한 문항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오는 28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해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남도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설명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설명회가 22일 오후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매뉴얼 만든다

광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공동체 등 56개 사업 추진

광주시가 시민 안전권 강화와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된 2대 추진체계와 56개 세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2개의 추진체계와 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우선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공동체 ▲아동청소년의 자율과 안전 강화 ▲청장년의 1+3(일+삶) 보장 ▲온종일 노인 통합돌봄 ▲장애인의 행복한 공동체 ▲다함께 따뜻한 지역복지 등 6대 추진전략 분야에서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 균형발전 전략체계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자치구 역량강화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에서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3년 시행계획과 달라진 점은 중앙정부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인사, 재무, 후원금, 인권 분야에 대한 공통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지원하는 세부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시민 안전과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더욱 세심한 사회보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자체 점검을 강화해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기업-청년 구직자 만남 '문전성시'

광주시 '드림만남의 날' 924명 몰려…27일 430명 최종 선정

청년들의 구직활동 의지를 복돋아주기 위한 행사에 청년 구직자 924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만남의 날'에 청년구직자 924명과 29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청년 구직활동과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사업장(드림터)과 구직 청년 간 '일 경험' 상담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사업장에서의 직무 등에 대한 상담과 면접 등이 이뤄졌다.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2024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수상한 에코피스(주), (주)인디제이 등 창업기업 등이 참여했다. 또한, 한국알프스(주), (주)금호기공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등 모두 29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청년 구직자들 중 430명은 15기 '드림 청년' 참여자로 선정돼 매칭된 사업장에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일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7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및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15기 '드림 청년'들은 오는 3월4일부터 6일까지 광주시가 진행하는 공통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을 통해 6300여명의 광주 청년들에게 직무 적성 탐색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취약계층 1684명에 새 일자리

105억 들여 199개 마련…장기 실직자 등 우선 선발

전남도가 도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지역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지난해 나주 다문화가정 돌봄사업, 보성 일자리 발굴단 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구 상생일자리 지원 등 188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영세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 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분야 199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5억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취업을 바라는 도민 1684명에게 생계안정 및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미만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이외에도 간식비 5000원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시·군별 모집 기간과 운영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1954~2024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 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계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4. 2. 22(목) ~ 28(수) · 전 형 일 : 2024. 2. 28(수) 18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계를 향하여

정시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4. 2. 22(목) ~ 28(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